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장막, 증거막, 증거의 장막, 성소, 여호와의 집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히 8:5말씀에 보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모세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양식대로 만들었습니다(출25:40). 또한 성막은 회막으로도 불리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인간들을 만나 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싯딤나무로도 불리었는데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로서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궤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로도 불렸습니다. 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안에 증거판 즉 십계명이 기록된 돌 판을 두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그 덮개 끝에 그룹 둘을 만들어 그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하였습니다. 그룹은 천사들의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어 '케루브'를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 번씩 이곳에 들어와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의미로 A mercy seat,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은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말합니다. 진설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로 만든 빵을 가리킵니다. 매 안식일 마다 이 빵을 새것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묵은 빵은 제사장들

이 성소에서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의 개수는 12개를 놓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였고 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 잔과 병을 함께 두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두는 상에서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며 항상 떡을 준비하는 것은 변함없는 영원하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 왼쪽, 진설병 상 반대편에 위치하였고 바깥과 차단 된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이 등잔대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했으며 특히 저녁부터 아침까지도 항상 그 등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 등잔대와 등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복음으로 이 땅이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열 폭의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 폭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의 가장 안쪽을 덮었습니다. 그 위를 성소를 덮는 막으로 덮었는데 이 휘장은 열한 폭의 염소 털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덮었고 제일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 성막의 처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음으로 그곳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들을 나타내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지으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은 염소 털로 또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죄인들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수와 빛을 차단하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도무지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덮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성막의 벽을 만들었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 성막의 벽을 지탱하게 하였습니다. 이 널판과 띠는 성막의 뼈대를 세우는 구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절차와 방식이 매우 세심하고 정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광야에서 천막으로 세우는 임시적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세우는 것을 이렇게 세심하고 정교하게 지시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 사역은 정

밀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이것을 짐으로 여기면 복잡하고 부담스럽기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정교하게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휘장을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았습니다. 휘장은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와 떡상과 등잔대, 분향단이 있는 성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 가셨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이것은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짜서 또 다른 휘장을 만들어 성소로 들어오는 성막 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도 불리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 사용하였습니다.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제물을 붙들어 매기 위한 기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뿔은 '도움'과 '도피처'를 상징하고 희생제물의 피를 이 뿔에 바르므로 '제단의 속죄의 능력'을 상징하였습니다. 또한 그물은 번제단에 설치되어 희생 제물을 올려놓거나 그 제물의 재를 쉽게 처리하도록 청동으로 만든 그물 모양의 기구였습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마당인 바깥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으며 뜰의 길이는 약 46미터, 폭은 약 23미터이며 높이가 약 2.4미터인 포장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쳐서 사람이나 짐승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일반 백성은 이 곳 뜰까지만 들어 올 수 있었고 제사장은 이 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뜰은 성도와 불신자의 구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계속 켜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순수한'이라는 의미는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맑고 깨끗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잔대에 이 순수한 감람유를 채워 넣음으로 빛을 내듯이 성도들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만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으로 불렸습니다. 제자상을 위한 옷은 흉패와 에봇, 그리고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그리고 거룩한 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조끼 모양의 겉옷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베실로 정교하게 짜서 지었으며 어깨에 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띠에는 호마노 둘을 달았는데 이 호마노에는 각 6명씩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제사장의 겉옷인 에봇에 부착하는 흉패는 판결 흉패로 불렸습니다.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흉패는 에봇짜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흉패에는 3개씩 네 줄로 모두 12개의 보석을 박았는데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제사장의 겉옷은 에봇 밭침 겉옷으로 전부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겉옷은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를 갑옷 깃같이 만들어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옷의 맨 밑단에는 석류와 금 방울을 돌아가며 달아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제사장이 죽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만들어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매달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 된 직책을 담당할 때 이 패와 관을 머리에 씀으로 항상 그 패가 이마에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분향할 제단은 성소의 휘장 앞 중앙에 놓인 금향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네 귀퉁이에 뿔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아침과 저녁 등불을 손질하고 킬 때에 이 향단에서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제단으로 다른 향을 피우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성막과 제단 사이에 놓여 있는 물을 담아 놓은 커다란 그릇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전후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 이 물두멍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

님께 나아갈 때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향기름은 액체 몰약과 향기로운 육계, 향기로운 창포와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을 섞어서 만든 거룩한 관유입니다. 이 향기름을 회막과 증거궤, 상과 등잔대, 분향단과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밖의 모든 기구들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제사장에게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향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갈5:25 말씀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물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게만 생각했던 성막과 또한 관련된 성물들에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처럼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과 그 기구들이 기록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